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6.6.19.(금) 조간	배포	2026.6.18.(목)
----	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자산운용감독국	책임자	팀 장	류지웅	(02-3145-6717)
	자산운용제도팀	담당자	선 임	윤찬송	(02-3145-6718)
	소비자피해예방국	책임자	팀 장	심여희	(02-3145-8235)
	피해예방2팀	담당자	선 임	김주희	(02-3145-8237)

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

■ 소비자경보 2026-17호	
등급	주의 경고 위험
대상	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등

소비자경보 내용

-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, 단일종목 레버리지 · 인버스 상품(이하 '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')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(최대 낙폭 $\Delta 36.9\%$)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- ➔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.

< 소비자 유의사항 >

- 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'분산투자' 상품이 **아닙니다.**
- ② 매수 · 매도 호가 부족 상황에서는 **시장가 주문을 주의**해야 합니다.
- ③ 손실이 하루 만에 **2배로 커질 수** 있습니다.
- ④ '음의 복리효과'로 기대한 수익률 보다 **더 낮아질 수** 있습니다.
- ⑤ 시장가격이 실제 상품 가치와 **다르게 형성(괴리율)**될 수 있습니다.

연속 하락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최대 낙폭

구분	기초자산	레버리지
삼성전자	$\Delta 18.0\%$ (6.4.~6.8.)	$\Delta 35.9\%$ [2배]
SK 하이닉스	$\Delta 19.1\%$ (6.2.~6.8.)	$\Delta 38.0\%$ [2배]



I. 발령 배경

-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 - 아울러 AI 테마·반도체 업황 기대 등으로 기초자산(삼성전자·SK하이닉스)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,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도 단기간에 크게 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의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.

II.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동향

- **(시가총액)**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(5.27.) 4.5조원에서 9.6조원(6.12. 기준)으로 12거래일 만에 2배 이상(+5.1조원) 급증하는 등 투자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※ 투자 주체별

- ▣ 5.27.~6.12. 기간 중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.2조원(92.7%) 순매수*한 반면,
 - * 단일종목 레버리지 유동성공급자(LP) 등 기관은 8.6조원 순매도
- 외국인의 순매매 규모(△0.2조원)는 크지 않아 주로 개인투자자가 주가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**(회전율)** 일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.5% (일평균 거래대금은 8.6조원)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,
 - 이는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현물 주식(1% 미만) 및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·인버스 ETF(30.2%)를 크게 웃돌면서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

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및 거래 동향

(단위 : 조원, %)

기초자산	시가총액 ¹⁾	거래대금 ²⁾	회전율
삼성전자	4.2	3.5	117.8
SK하이닉스	5.4	5.0	126.0
합계	9.6	8.6	122.5

1) 6.12.기준(상장 직전 4.5조원), 2) 5.27.~6.12. 기준 일평균

□ **(괴리율*)** 상장 초기 괴리율(5.27.~6.12.)은 평균 $\Delta 1.0 \sim 3.5\%$ 이내로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·인버스 ETF($\Delta 0.8 \sim 1.2\%$)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며,

* 상품의 실제 가치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차이를 의미

○ 개장 직후 또는 장 마감 무렵 순자산가치(NAV)와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.

□ **(최대 낙폭*)** 5.27.~6.12. 기간 중 연속 하락장**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평균 $\Delta 36.9\%$ 에 달하였습니다.

* 일정 기간 중 고점 대비 최대 손실폭 ** (삼성전자) 6.4.~6.8., (SK하이닉스) 6.2.~6.8.

○ (삼성전자)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$\Delta 35.9\%$ 에 달하며, 같은 기간 기초자산의 최대 낙폭($\Delta 18.0\%$) 대비 2배 하락하였습니다.

○ (SK하이닉스)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낙폭은 $\Delta 38.0\%$ 에 달하며, 같은 기간 기초자산의 최대 낙폭($\Delta 19.1\%$) 대비 2배 하락하였습니다.

연속 하락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최대 낙폭(5.27.~6.12.)

구분	기초자산	레버리지
삼성전자	$\Delta 18.0\%$ (6.4.~6.8)	$\Delta 35.9\%$ [2배]
SK하이닉스	$\Delta 19.1\%$ (6.2.~6.8.)	$\Delta 38.0\%$ [2배]



Ⅲ. 소비자 유의사항

1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'분산투자' 상품이 아닙니다.

-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나의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, 통상의 분산투자형 ETF와 달리 개별기업의 주가 변동에 그대로 노출됩니다.
 - 이에 해당 기업의 실적 부진, 업황 전망 악화 등 개별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고, 상품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반도체·AI 등 관련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더라도, 기초자산인 개별기업에 악재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의 손실로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.
 - 따라서 투자자는 동 상품을 일반적인 ETF와 같은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2 매수·매도 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장가 주문을 주의해야 합니다.

- 유동성공급자(LP)는 매수·매도 호가를 제시하지만, 개장 직후(09:00~09:05) 및 장마감 무렵(15:20~15:30) 등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.
 - 이 시간대에는 매수·매도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, 투자자가 시장가 주문을 제출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.
 - 또한 기초자산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투자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대의 호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투자자는 호가가 충분한지, 매수·매도 호가 차이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고, 시장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등 주문 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【사례】

-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당일(26.5.27.)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 주가가 개장 직후 급등하면서 일부 상품에서 충분한 매도호가 제시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.
 - 이 과정에서 일부 시장가 주문이 순자산가치(NAV)와 크게 괴리된 가격에 체결되어 투자자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.

3 손실이 하루 만에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.

-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 종목의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.
- 따라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, 일반주식이나 일반 ETF보다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특히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$\pm 30\%$ 인 점을 고려하면, 하루에도 최대 60%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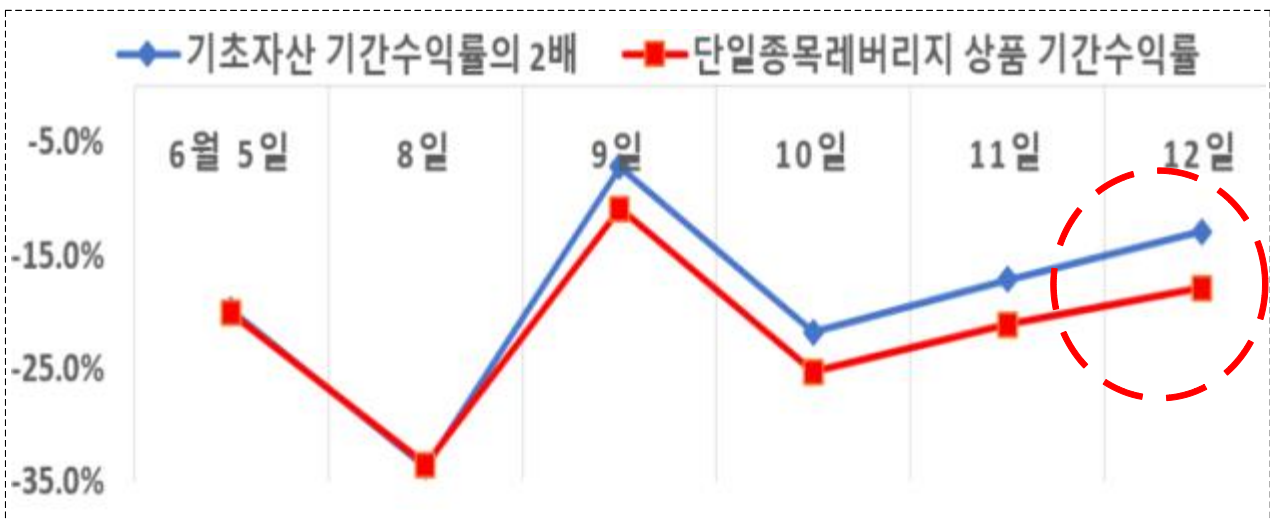
【사례】

- ▣ 상품 출시 후 SK하이닉스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했던 '26.6.5.의 경우, SK하이닉스 주가는 9.92% 하락하였고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% 하락하였습니다.
- 레버리지상품인 만큼 기초자산 하락폭이 상품 가격에 확대 반영되면서, 하루 만에 일반 주식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4 '음의 복리 효과'로 기대한 수익률 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

-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용되므로, 투자 기간 전체 수익률이 기초자산 기간수익률의 2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, 수익과 손실이 누적 되는 과정에서 투자 성과가 투자자의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.
- 투자자는 상품의 단기 변동성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중 가격 등락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기대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.

【예시】 A社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



5 시장가격이 실제 상품 가치와 다르게 형성(과리율)될 수 있습니다.

-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므로, 투자자가 실제로 사고파는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 가격입니다.
 - 이 시장가격은 상품의 순자산가치(NAV)와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, 이 차이를 과리율이라 합니다.
- 투자자가 일시에 몰리거나 매수·매도 호가가 부족한 경우, 상품의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으며,
 - 특히 기초자산 변동성이 클 경우,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이 2배로 증폭되는 구조이므로 과리율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.
 - 이 경우 투자자는 상품의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되며, 이후 과리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*.
 - * 반대로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에는 투자자가 매도 시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될 수 있음
- 따라서 투자자는 매수 전 과리율을 반드시 확인*하고, 과리율이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에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* 한국거래소 홈페이지(data.krx.co.kr) → ‘기본통계’ → ‘증권상품(ETF 또는 ETN)’ → ‘세부 안내(과리율 추이)’에서 확인 가능

【예시】

- ▣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 1주당 실제 자산가치(NAV)가 10,000원인데 시장에서 10,2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과리율이 +2%입니다.
 - 이는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실제 가치보다 2% 비싸게 매수한다는 의미이며, 이후 시장가격이 NAV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, 그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IV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,
 -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아질 경우에는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구 분	정보 확인 경로
<p>기준가*(NAV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(data.krx.co.kr) → '기본통계' → '증권상품(ETF)' → '개별종목 시세 추이' ■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(상품별 '기준가' 항목)
<p>분배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(seibro.or.kr) → 'ETF' → '권리 행사정보' → '분배금 지급현황' ■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(상품별 '분배금 현황')
<p>합성총보수(TER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(dis.kofia.or.kr) → '펀드 공시' → '펀드 보수 및 비용' → '펀드별 보수비용 비교'
<p>추적오차·과리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(data.krx.co.kr) → '기본통계' → '증권상품(ETF)' → '세부안내(추적오차율 추이, 과리율 추이)'
<p>투자설명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공시시스템(dart.fss.or.kr) → '펀드 공시' ■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(상품별 '투자설명서')
<p>자산구성내역(PDF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(data.krx.co.kr) → '기본통계' → '증권상품(ETF)' → 'PDF(Portfolio Deposit File)' ■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(상품별 '구성종목' 항목)

* ETN의 경우, 한국거래소 홈페이지(data.krx.co.kr) → '기본통계' → '증권상품(ETN)' → '세부안내(과리율 추이)'에서 종목별 증가, 지표가치, 과리율 일별 정보 확인 가능